

예정과 자유 의지

Predestination | Free Will



- 이 자료는 존슨 대학교 이사장, Richard E. Woods 전기공학 박사(B.S., MS, Ph.D.)의 PPT를 활용하여 작성 되었다. 전 세계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디지털 영상 처리(Digital Image Processing)>의 공동 저자이자, 교수, 컴퓨터 응용 엔지니어(다수의 특수 목적 디지털 프로세서 개발에 참여), 기업가 및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교육가이기도 하다.

- 예정과 자유의지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미래가 여러 갈래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도 보인다—사람들, 사건들,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그분을 따르는 결정으로 이끄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결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딜레마가 생긴다 ...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God has sovereign
control over all
earthly affairs.

하나님의 절대주권 VS 인간의 자유의지
God is Sovereign and
We Have Free Will

딜레마
The Dilemma

인간은 선택의 자유자
God made us with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that affect
the future.

- 둘 다 참일 수 있을까? 만약 인간이 자유롭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권적일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인간의 선택이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우리는 (1) 이 두 관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2) 때로는 이 두 관점을 동시에 붙들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존(John) 삼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로 선택하셨다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존(John) 삼촌처럼 심장마비로 죽지 않기 위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다.

- 또는 기독교대학교의 이사회 구성원(실제로 존슨 대학교 이사장)으로서, 어떤 해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재정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해에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모금 부서의 인력을 교체하거나 전문 마케팅 전략가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책들이 쓰였다. 철학적 관점, 신학적 관점,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를 구원에 한정하면, 논쟁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좁혀진다 ...

칼뱅주의
Calvinism

예정론과 자유의지
Predestination and Free W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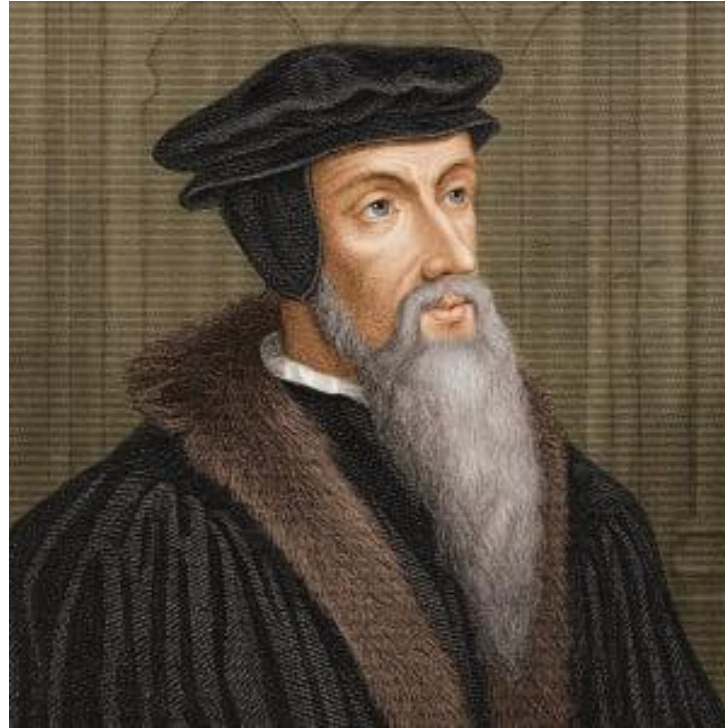
구원
Salvation

알미니안주의
Arminianism

- 칼뱅주의 VS 알미니안주의. 어떤 교리가 옳은지는 성경말씀에 달렸다. 칼뱅주의는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보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칼뱅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신봉자들이 성경적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신봉자들이 성경적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논쟁이 되는 몇몇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배경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루터(1483-1546) 이전에는 가톨릭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고, 수도사가 되었으며,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신적 권위 주장에 문제의식을 느껴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촉발했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장 칼뱅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

장 칼뱅 John Calvin (1509 -1564)

마르틴 루터 이후
두각을 나타낸 개신교
신학자
Martin Luther's
successor as the
preeminent Protestant
theologian



- **파리에서 법학공부** Studied law in Paris and left Roman Catholic Church around 1530
- **파리에서 도피** Fled Paris in 1536
- **기독교 강요 출판** Published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 1536
- **제네바로 이동** Geneva in 1536
- **마르틴 부처에게서 수학** Studied in Strasbourg under Martin Bucer in 1538
- **제네바를 개신교운동의 중심지로** In 1541, leader of the government of Geneva, center of Protestant movement
- **파송된 목사들의 활동 결과** Sent out pastors that resulted in
 -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Presbyterian in Scotland
 - **영국의 청교도** Puritan in England
 -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Netherlands

- 칼뱅은 루터보다 26년 뒤에 태어났으며,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 했을 때 겨우 8살이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곳에서 개신교 운동으로 개종했다. 그는 자신을 루터의 추종자로 여겼다. 그러나 가톨릭의 박해로 파리를 떠나야 했고, 루터의 초기 제자 중 한 명인 마르틴 부처에게 배우기 위해 스트라스부르로 갈 계획이었다.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그는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표준화하려는 초기 시도 였으며,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 교리서로도 의도되었다. 칼뱅은 매우 (필기체 상황에서 'i' 위에 점 찍기와 't' 위에 가로선 긋기를 철저히 행기듯이) 체계적인 신학자였다. 그 때문에 예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비록 그 이전에도 루터를 포함해 아우구스티누스(1200여년 전)까지 같은 기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칼뱅은 이를 특히 강력하게 변호했다.

- 파리를 떠난 뒤 그는 제네바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가톨릭 주교가 막 축출된 상황이었다. 반란을 이끈 사람이 칼뱅에게 남아 새로 개혁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고, 칼뱅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젊고 다소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곧 쫓겨났다. 그 후 그는 마침내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해 부처에게서 신학을 배웠다. 1541년, 그는 다시 제네바로 초청되어 교회를 이끌게 되었다. 그리고 지도자로 임명된 첫 5년 동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58명이 처형되고 76명이 추방되었다.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그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퇴출당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칼뱅은 여러 교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그렇다면 그는 루터와 어떻게 달랐을까?

칼뱅-루터 비교

Calvin-Luther
Comparison

주로 내용보다는
강조의 문제이다

Primarily a matter
of emphasis rather
than content

유사점 Similarities

- 가톨릭에 대한 견해
View of Catholic Church
-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 예정론
Predestination

차이점 Differences

- 주의 만찬/
성만찬
Lord's Supper
- 유아세례
Infant Baptism
- 음악/악기사용
Music
- 교회와 국가
Church and state

-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사람의 차이는 주로 강조점의 차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들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었다.

➤ 주요 신학적 차이

-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in Jesus) :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식. (칼뱅은 사람이 믿음을 갖는 이유 자체가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 : 모든 권력, 권위, 존재의 궁극적 근원(전능, 전지 등). *그러나 칼뱅은 루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했다.

➤ 그 외 비교적 작은 차이들

- 주의 만찬(Lord's Supper) : 루터는 성찬의 요소(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현존한다고 믿음(공재설에 가까움). 반면에 칼뱅은 영적 임재를 주장(순수 상징설과 실제 임재설 사이의 절충).
- 유아 세례(Infant baptism) : 루터는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는다고 봄. 반면에 칼뱅은 유아세례를 외적 표지 정도로 이해.
- 예배 음악 : 루터는 비교적 자유로움(찬송가, 악기 사용 적극적). 반면에 칼뱅은 매우 엄격함(악기 사용 금지 또는 최소화).
- 교회와 국가의 관계 : 루터는 교회와 정부가 얽혀 있는 것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음. 반면에 칼뱅은 비록 제네바 교회가 시의회 종교였으나 일정부분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 츠빙글리와 칼뱅이 유아세례를 고집한 것은 시의회 또는 국가 종교의 유익 때문이었음.

기독교 강요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 제1판 1st Edition (1536)
 - 십계명 Ten Commandments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주의 기도 Lord's Prayer
 - 성례(성사) Sacraments
 - 그리스도인 자유 Christian Liberty
 - 정치신학 Political theology
- 제5판 5th Edition (1559)
 - 80% 증보 80% larger
 - 학자들이 사용하는 최종판 Used by scholars as authoritative text

-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는 칼뱅의 대표적 저작이었다.

➤ 총 다섯 번의 판본이 출판되었다.

- 초판(1판): 6장 구성
- 제2판: 동일한 주제를 다루되 17장으로 확대
- 마지막 판본은 초판보다 약 80% 증보되었으며, 당시 학자들이 권위 있는 표준 본문으로 사용하였다.
- 어떤 판본은 프랑스어, 어떤 판본은 라틴어로 출판되었다.
- 기독교강요에서 칼뱅은 예정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예정론에 대한 칼뱅의 정의 Calvin's Definition of Predestination

“우리가 예정(presdestination)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작정(decree)을 의미한다. 그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영생에, 또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에 미리 정해졌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이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생명 혹은 사망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

“By predestination we mean the eternal decree of God, by which he determined with himself whatever he wished to happen with regard to every man. All are not created on equal terms, but some are preordained to eternal life, others to eternal damnation; and, accordingly, as each has been created for one or other of these ends, we say that he has been predestinated to life or to death.”

- 다음 내용을 주목해 보라.
- 이 정의에는 대칭성이 있다.
-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선택하시고(이를 선택이라 한다), 다른 이들은 멸망으로 정하신다(이를 유기라 한다).
- 이 사상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일반적으로 갖는 관점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다.
- 그래서 이제 칼뱅이 처음에 어떻게 논리를 전개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물론 이 시도가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

칼뱅의 논증

Calvin's Reasoning

1. 아브라함 Abraham

2. Israel

3. Esau

4. Romans 9

5. Conclusion

창세기 Genesis 17:3-8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칼뱅은 유대 민족의 선택과정을 유비(analogy)로 삼아 5단계 접근법을 취했다. 참고: <https://gentlereformation.com/2018/04/30/john-calvin-and-the-awful-doctrine-of-predestination/amp/> 그 논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사건에서 시작된다. 칼뱅은 창세기 17장 3-8절을 인용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대표자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세 가지 큰 약속을 주셨다: (1) 관계, (2) 수많은 후손, (3) 땅. 성경은 그가 선택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여호수아 24:2-3, 언약 갱신)을 알고 있다. 즉, 데라는 다신교적이었고, 따라서 아브람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칼뱅이 아브라함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칼뱅의 논증 Calvin's Reasoning

1. Abraham
2. 이스라엘 Israel
3. Esau
4. Romans 9
5. Conclusion

신명기 Deuteronomy 7:7-8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The Lord did not set his affection on you and choose you because you were more numerous than other peoples, for you were the fewest of all peoples. But it was because the Lord loved you and kept the oath he swore to your ancestors...

- 그는 이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말한다. 칼뱅은 신명기 7장 7-8절과 같은 구절을 인용한다(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 여기서 칼뱅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칼뱅의 논증

Calvin's Reasoning

1. Abraham
2. Israel
3. 에서 Esau
4. Romans 9
5. Conclusion

말라기 Malachi 1:2-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Was not Esau Jacob's brother? saith the Lord: yet I loved Jacob, and I hated Esau.

-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부 후손들을 거절하셨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유기(reprobation)의 한 예가 된다는 것이다.
- 그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동일한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거절하셨을 때였다.” 그리고 그는 말라기서를 인용한다.
- 칼뱅의 해석은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에서는 정죄 되었다는 것이다.

칼뱅의 논증

Calvin's Reasoning

1. Abraham

2. Israel

3. Esau

4. 로마서 Romans

9:13-18

5. Conclusion

로마서 Romans 9:13-18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 마침내 그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우리가 방금 논의한 본문을 인용하며 그로서 예정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 그는 말라기 1:2-3과 출애굽기 33:19 둘 다를 인용한다.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것은 예정이 실제라는 주장처럼 들리며, 칼뱅의 견해를 지지하는 주요 성경 구절 중 하나로 여겨진다.
-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다!

칼뱅의 논증

Calvin's Reasoning

1. Abraham
2. Israel
3. Esau
4. Romans 9:13-18
5. 결론 Conclusion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는 주께서 인간 안에서 은혜를 베풀 만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에 따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대의 구원을 오직 자신 [높은 권위] 안에 두셨는데, 어찌하여 너는 굳이 그대 자신 [낮은 권위]에게로 내려가려 하는가.”

“And what pray, does this mean? It is just a clear declaration by the Lord that he finds nothing in men themselves to induce him to show kindness, that it is owing entirely to his own mercy, and, accordingly, that their salvation is his own work. Since God places your salvation in himself alone, why should you descend to yourself?”

칼뱅은 강한 반발을 예상함

Calvin
Anticipated
Strong
Reaction

-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혀진 것 이상으로 예정에 대해 캐묻거나 더 많은 지식을 구하려 하지 말라. Don't question or seek more knowledge about predestination than that which is expounded by the word of God.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but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신명기 29:29

- 예정이란, 인간의 행위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Predestination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consequence to how men act.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에베소서 1:4

- 칼뱅은 이것이 일부 독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미리 경고한다 ...
- 이제, 아르미니우스로 넘어가 보자 ...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Jacob(us/y)
Arminius

(1560-1609)



- 개신교 성향의 사제에게 입양됨
Adopted by a priest inclined toward Protestantism
- 1576년 레이덴 대학교에서 교양학을 수학 Studied Liberal Arts at Leiden University (1576)
- 1587년 암스테르담에서 목사로 사역 Pastor in Amsterdam (1587)
- 1603년 레이덴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 Theology teacher at Leiden in 1603.
- 타락 이후 예정 논쟁이 항의파 (Remonstrants)의 5개 조항으로 이어짐 Controversy over Infralapsarianism led to the *Five Articles of the Remonstrants*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생애

-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15세가 되기 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는 개신교 성향을 가진 한 사제에게 입양되었다.
- 그는 학업을 계속하여 레이덴 대학교(네덜란드)에 입학해 교양학(Liberal Arts)을 공부했고, 일부 신학 과정도 함께 수강했다.

➤목사(PASTOR) 시절

- 암스테르담 교회 법정(교회 회의)은 그에게 한 가지 과제를 맡겼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었다.
-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1) 어떤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유기하여 정죄하기로 한 작정이, (2)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신 작정보다 먼저 있었다는 주장(Supralapsarianism, 타락 이전 예정).

- 이 문제는 작정의 순서에 관한 논쟁이었다. 당시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는 타락 이후(Infralapsarianism)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지만, 에베소서 1장 4-6절은 “창세 전에” 선택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타락 이전(Supralapsarianism) 작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아르미니우스는 이 문제에 대해 내적으로 갈등을 느꼈고, 더 깊이 연구하고자 했다. 비슷한 시기, 그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은혜, 예정,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가 점차 발전했고, 이는 당시 개혁교회가 지지하던 정통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신학 교수(THEOLOGY TEACHER) 시절

- 1603년 그는 레이덴에서 신학 교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 맡았던 바로 그 문제—즉 작정의 순서에 대해—더 고위급 교수와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 하지만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기존의 정통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논쟁이 격화되자, 아르미니우스가 지닌 “비정통적 견해”를 폭로한다는 취지의 익명의 31개 조항 문서가 유포되었다.
- 두 사람의 논쟁은 결국 헤이그의 최고법원까지 올라갔고, 법원은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미묘하며 서로를 관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논쟁이 계속 격화되었고, 이는 아르미니우스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

➤아르미니우스 사후의 발전

-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에 사망한 후에야 그의 신학은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 그의 제자들과 지지자들은 1610년에 ‘항의파의 5개 조항’(Five Articles of the Remonstrants) 을 작성하여 그의 사상을 공식적으로 체계화했고, 이 문서는 1618 - 1619년 도르트 총회(Synod of Dort)에 제출되었다.

항의파의 5개 조항 Five Articles of Remonstrance

vs.

칼뱅주의 5대 교리 Five Points of Calvinism(TULIP)

알미니안주의 Arminianism

- 자유 의지(인간의 능력)
Free will (or human ability)
- 조건적 선택 Conditional election
- 보편 구속 General atonement (universal redemption)
- 성령의 중생 사역은 인간의 의지에 제한된다 Holy Spirit regeneration limited by human will
- 은혜를 입은 후 타락할 수 있다 Falling from grace

칼뱅주의 Calvinism(TULIP)

-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
-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 제한 구속 Limited atonement (particular redemption)
- 거절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calling
-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 항의파의 5개 조항과 칼뱅주의의 TULIP 비교 설명

- 첫 번째 열 알미니안주의 다섯 개의 조항이 항의파의 주장이다. ‘Remonstrance’(레몬스트란스)는 ‘항의’ 또는 ‘이의 제기’를 뜻한다.
- 도르트 총회는 성경의 빛 아래에서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총회는 7개월 동안 154회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알미니안주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근거를 찾지 못했다. 총회는 칼뱅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알미니안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칼뱅주의 5대 교리, 즉 흔히 “TULIP”으로 알려진 내용을 정리했다. 이것이 두 번째 열 칼뱅주의에 담긴 다섯 개의 조항이다.
- 항의파 조항1: 자유의지(또는 인간 능력)
- 이 조항은 인간이 타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영적 선을 선택할 완전한 무능 상태는 아니며, 스스로 믿음을 행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자신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 수 있다고 가르쳤다. 반면에 칼뱅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 또는 부패하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다.

■ 항의파 조항2: 조건적 선택(Conditional Election)

- 이 조항은 하나님께서 누가(who) 복음에 응답할지를 미리 아셨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원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가르쳤다. 반면에 칼뱅주의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고 했다.

■ 항의파 조항3: 보편 속죄(General Atonement)

- 이 조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이는 잠재적 효력만을 가지며, 사람이 믿을 때에만 그 속죄가 실제로 적용된다고 가르쳤다. 반면에 칼뱅주의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정된 자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속을 이루셨다고 했다.

- 항의파 조항4: 성령의 중생 사역이 인간 의지에 의해 제한됨
 - 이 조항은 성령의 중생 사역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저항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반면에 칼뱅주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 항의파 조항5: 은혜를 입은 후 타락할 수 있음(Falling from Grace)
 - 이 조항은 체계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만약 인간이 구원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 구원의 최종 결과 또한 인간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이다. 즉,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칼뱅주의는 예정된 자는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확정적 문서(기독교 강요와 같은)는 찾기 어렵지만, 보통 알미니안주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장된다 ...

-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은 칼뱅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구절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성경 전체가 자유의지 개념을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참고: <https://www.evidenceunseen.com/theology/calvinism-versus-arminianism/biblical-defense-of-arminianism/>

첫 번째 요점은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God desires all people to be saved

- 벧후 3:9 주의 약속은 ...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딤후 2:3-4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요한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 요한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 에스겔 18:2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요점은 ...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뜻을 거역하도록 허용하신다

God allows humans to resist his will

-
- | | |
|-----------|--|
| 마태 23:37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
| 마태 22:3 |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
| 요한 7:17 |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
| 잠언 1:24 |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
| 예레미야 18:8 |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
-

성경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Free Will is taught in the Bible

요한 3:18, 15:10; 여호수아 24:15
Jn 15:10; Josh 24:15; Jn 3:18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선택**하고, 믿기를 요구하신다. 만약 우리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God calls on people to *obey*, *choose*, and *believe* in him. These calls would be nonsense, if we are not free moral agents.

고전 3:10-15; 계시록 20:11-15
1 Cor 3:10-15; Rev 20:11-15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만 이러한 심판이 의미를 갖는다.

God *judges* us. Humans are *rewarded* and *punished* according to their actions. Judgment only makes sense, if we are free to choose and culpable for our choices.

다음 쪽에서 계속됨 →

성경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Free Will is taught in the Bible

창세기 22:1; 야고보서 1:12; 벨전 1:6-7; 고전 10:13 Gen 22:1; Jas 1:12; 1 Pet 1:6-7; 1 Cor 10:13

에스겔 33:11, 18:23-32
Ezek 18:23-32; 33:11

누가 7:30; 사도행전 7:51; 마태 23:3, 6:10; 요한 7:17 Lk 7:30; Acts 7:51; Mt 23:3, 37; Mt 6:10; Jn 7:17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God *tests* his people, which implies our ability to *pass* or *fail*.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간청하십니다. 이는 자유로운 도덕적 결단이 있을 때에만 그 요청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 준다. God *pleads* with sinners to repent, which would only make sense in light of free moral decision.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 원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막는 어떤 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자유의지이다. God *desires* all men to believe in him. An omnipotent being “desires” something that clearly is not happening. Something must be stopping God from doing what he wants to do. Freewill is the most likely solution to this problem.

▶셋째로, 각 개념(생각)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요한복음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2. **[계시록 20:12]** “...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3. **[창세기 22: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 **[에스겔 33:11]**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5. **[마태복음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다른 논증들

Other Arguments for Free Will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지의 자유를 함축한다. 하나님을 죄의 원인(주체)이라고 주장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The very fact that we can *sin* implies freedom of the will, unless we are claiming that God is the agent of sin.

계시록 Rev 4:11

누가복음 Lk 22:42

1. 하나님 자신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이시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뜻으로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God himself is a *free moral agent*—“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were created.”
2.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Jesus submitted his will to the Father’s will.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다른 논증들

Other Arguments for Free Will

마태복음 Matt 19:24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3. 이 구절이 칼뱅주의적 관점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만약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역만으로, **그 어떤 협력(인간의 조력)도 요구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인다.

What exactly could this verse mean from a Calvinist perspective? Is Jesus saying it is harder *for God* to save a rich man than a poor one? How could that be? If everyone, without exception, only gets into the kingdom of God by God's work alone **without any required cooperation on his or her part**, then Jesus' saying makes no sense at all.

자유의지에 대한 다른 세 가지 논증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대략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자 ...

논쟁이 되는 구절들 Disputed Passages

칼뱅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 가운데 알미니안들이 이견을 제기하는 것들이 많다. 아래는 그중 일부 목록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절들은 종종 '빅 3(The big three)'라고 불리며, 칼뱅주의 입장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구절들로 여겨진다. 이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

출 4: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삼상 18:10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갈 1:15-16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기뻐하셨을...
암 3:6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이 아니겠느냐?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엡 1:5	그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논쟁이 되는 구절들 Disputed Passages

칼뱅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 가운데 알미니안들이 이견을 제기하는 것들이 많다. 아래는 그중 일부 목록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절들은 종종 '빅 3(The big three)'라고 불리며, 칼뱅주의 입장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구절들로 여겨진다. 이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자 ...

...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마 11:27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요 1:13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요 6:44-45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요 13:18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어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딤편전 2:4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논쟁이 되는 구절들 Disputed Passages

칼뱅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 가운데 알미니안들이 이견을 제기하는 것들이 많다. 아래는 그중 일부 목록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절들은 종종 '빅 3(The big three)'라고 불리며, 칼뱅주의 입장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구절들로 여겨진다. 이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고 한다 ...

<p>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행 13:48 믿더라.</p>	<p>딤후 2:25</p>	<p>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p>
<p>롬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p>	<p>벤전 1 1:2</p>	<p>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p>
<p>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p>	<p>벤후 2 2:1</p>	<p>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p>

논쟁이 되는 구절들 Disputed Passages

칼뱅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 가운데 알미니안들이 이견을 제기하는 것들이 많다. 아래는 그중 일부 목록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절들은 종종 '빅 3(The big three)'라고 불리며, 칼뱅주의 입장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구절들로 여겨진다. 이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자 ...

롬 9:17-19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롬 9:22-23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벧후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일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유 1: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해석의 네 가지 원칙

Four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알미니안주의 관점
Arminian Viewpoint

1. 나 vs 우리
“Me” vs “We”
2. 구원을 위한 선택 vs 사역을 위한 선택
“Chosen for heaven” vs “Chosen for ministry”
3. 모든 신자들 vs 특정 신자들
“All believers” vs “Those believers”
4. 예정과 선택은 모두 하나님의 미리 예지에 근거한다.
Predestination and election are both based on God’s foreknowledge

➤ 그러나 논쟁이 되는 본문을 살펴볼 때 염두에 둘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But here's some general principles to keep in mind when looking at a disputed passage.

- 선택(택하심)과 관련된 본문들은 종종 개별 신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 (엡 1:4). Often, passages on chosen-ness or election are referring to the *entire church*, rather than *individual believers*.
- 하나님은 종종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선택을 하신다 (갈 1:15; 요 15:16). Often God chooses us for the purpose of ministry, rather than for the purpose of salvation.
- 때로는 난해한 본문들이 현대 신자들이 아니라 당시의 원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Sometimes, difficult passages refer to the original audience only, rather than to modern believers.
- 하나님은 예지 예정 곧 믿음으로 나아오기로 자유의지로 결정할 것을 미리 아신 사람들을 예정하신다 (롬 8:29). God predestines the people that he knew would make the freewill decision to come to faith.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엡 1:4).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Eph 1:4)

우리는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두어졌다
→ 무조건적 선택
We are put into him before creation -->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

We are “chosen” because we are in Christ, but not chosen to be put into Christ. We are in Christ by our own free will. Read it more like “he chose us who are in Christ before...”

바울은 개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Paul is not referring to individuals but to the entire church.

“선택되었다”는 말이 “구원을 위한 무조건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다(눅 9:35).

2.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따르면 “택함 받은(선택된) 천사들”도 있다.

Chosen does not mean “unconditionally elected for salvation.”

1. A voice came from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Lk 9:35)

2. There are “elect (chosen) angels” according to 1 Tim 5:21.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엡 1:4).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Eph 1:4)

신실한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The faithful are “those who have faith.”

앞뒤 문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단순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울은 이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보낸다(엡 1:1). 여기서 ‘신실한 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엡 1:13).

The context (earlier and later) tells us that we get put *into* Christ simp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1. Paul writes this letter “To God’s holy people,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Eph. 1:1). The faithful are “those who are faithful.”
2. When you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Eph 1:13)

-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선택되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선택된다’는 것을 가르치는가?
- 에베소서 1장의 큰 흐름은 하나님이 어떤 개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적 복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 핵심이다(1-3절).
- 개혁주의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미니우스적 해석도 가능하며, 그리고 이 구절은 그 논의에서 가장 강력한 본문 중 하나다.
- 이 문제의 난이도를 주목하라. 우리가 살펴보는 세 본문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다.

➤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요 6:44-45).”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them,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Everyone who has heard the Father and learned from him comes to me. (Jn 6:44-45)

칼뱅주의 해석자들은 이 본문이 무조건적 선택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Calvinist interpreters argue that this passage supports unconditional election and irresistible grace.

예수께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결과로 “믿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Those who “come” to Jesus and are “drawn” by the Father are those who “hear” and “learn” from the Father and consequently choose to “believe.”

앞선 40절에서도 이 구절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erse 40 earlier uses the same language as this verse: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So, a condition of belief is implied.

아르미니우스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이끌다(draw)’와 ‘모든 사람(all)’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요 6:44-45).”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them,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Everyone who has heard the Father and learned from him comes to me. (Jn 6:44-45)

칼뱅주의 해석자들은 이 본문이 무조건적 선택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Calvinist interpreters argue that this passage supports unconditional election and irresistible grace.

“이끌다”라는 헬라이어 헬코(*helkō*)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사용된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질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보편구원설을 뜻하게 된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임탁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자주 원했더니.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The Greek word for “draw” (*helkō*) is also used in Jn 12:32: “And I, when I am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helkō*) all people to myself”. So, if this is describing irresistible grace, it would imply universalism! Clearly, we *can* ignore God’s drawing, for in Mt 23:37, we read,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to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and you were not willing.”

아르미니우스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이끌다(draw)’와 ‘모든 사람(all)’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내 능력을 네 안에서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희 중 어떤 이가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누가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로마서 9:17-19)” For Scripture says to Pharaoh: “I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that I might display my power in you and that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One of you will say to me: “Then why does God still blame us? For who is able to resist his will?”. (Ro 9:17-19)

칼뱅주의 해석자들은 이 본문이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선택,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유기까지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Calvinist interpreters argue that this passage supports unconditional election and irresistible grace for individuals and reprobation as well.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조차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Paul is teaching that God will harden people's hearts, so that he can get others to receive Christ. But even those who are hardened can turn back to God if they repent.

1.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출 7:13, 9:12 참조. Pharaoh hardened his own heart before God (see Ex 7:13, 9:12)
2. ‘**완악하게 하다**(*chazaq*)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보통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로 번역된다. The word harden (*chazaq*) is usually translated “strengthen” in the OT.
3. 하나님은 바로가 자신의 악한 의도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강화)을 주셨다. God gave Pharaoh the courage or strengthening to carry out his evil desire. So, he didn't give in out of fear.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내 능력을 네 안에서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희 중 어떤 이가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누가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로마서 9:17-19)” For Scripture says to Pharaoh: “I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that I might display my power in you and that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One of you will say to me: “Then why does God still blame us? For who is able to resist his will?”. (Ro 9:17-19)

칼뱅주의 해석자들은 이 본문이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선택,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유기까지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Calvinist interpreters argue that this passage supports unconditional election and irresistible grace for individuals and reprobation as well.

4.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칼뱅주의 관점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Hardening people who are totally depraved does not make sense under a Calvinistic view.
5.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루시는 ‘완악하게 하심’을 설명하는 예시이다. Pharaoh’s “hardening” illustrates God’s hardening for the nation of Israel to carry out his desire.
6.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임의적이거나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개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앙에 고정된 운명에 놓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롬 11:11-12 참조).” The hardening of Israel is neither arbitrary nor fatalistic, but to reach innumerable Gentiles. And individual Israelites are not doomed to unbelief but can still come to Christ (see Ro 11:11-12).

-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인가?
- 로마서 9장의 큰 흐름은 하나님이 어떤 개인은 선택하고 어떤 개인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 핵심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을 그의 나라로 들이시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

이런 논의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Does any of this make in practical
difference in our lives?

자신이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지식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THE BACK PEW - Jeff LARSON

and.. the Lord changed his mind! **Ex. 32:9-14**

-pause-
take
that you
crazy
Calvinists!



<http://thebackpew.com>

Whether Art the Arminianist was correct in his ongoing free will v predistinaion banter, there was no doubt he lacked people skills.

출애굽기 32장 9-14절에서 모세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도록 설득하려 하고, 결국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